



# 6.15 기치높이 통일을 마중가자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환희와 격정으로 새차가 끓어번지던 력사의 6.15가 또다시 왔다.

이날을 맞을 때면 자주통일의 새 장을 활짝 열어 펼쳐나가던 경이적인 화폭이 어찌런듯 떠오른다.

삼천리강산에 메아리치던 우리 민족끼리의 합심이 들려오고 평양과 서울에서, 금강산에서 감격에 겨워 뜨겁게 열싸이던 동포형제들의 모습도 눈앞에 선다.

그 6.15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행동으로 하여 오늘 최악의 진통을 겪고있다.

그러나 분열주의세력의 온갖 방해책동도 절세의 위인이 마련해준 6.15의 빛따라 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올려야 안아올리는 온 겨레의 강렬한 지향과 의지를 꺾을수 없다.

이것은 모진 시련과 역경을 통일애국의 신념으로 이겨내면서 내가 생활로 체험한 사실이며 온 겨레가 조국통일운동을 벌려오면서 심장으로 절감한 진리이다. 나라가 갈라져 60여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장애도 많고 난관도 중첩되었지만 우리 겨레는 그 앞에서 언제 한번 손뼉을 놓은적이 없었다.

내이분열주의자들이 발악할수록 더 완강히, 더 즐거우게 맞받아 싸우며 통일의 길을 열어왔다.

《우리는 하나》라는 노래구절에도 있듯이 찬란한 태양이 삼천리를 비추어 통일의 아침은 누리에 밝아온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투철한 신념이요 의지이다.

지금도 나는 옥중고초를 함께 이겨낸 동지들과 남조선의 광주에 있는 《통일의 집》에서 력사적인 평양상봉소식을 접하던 때의 감격을 잊을수 없다.

민족분열 55년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평양상봉의 기쁨과 환희가 어려서인가 유난히도 쾌청하던 그날 온 겨레는 가슴더질듯 한 격정과 환희에 휩싸였다.

내외의 예상을 깨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을 찾아오는 남측당국자를 맞이하시러 몸소 비행장에 나오신 소식은 전세계를 경탄시켰다.

그 화폭을 TV를 통해 지켜보는 온 남녘이, 전세계가 뜨거운 격정의 열기로 새차가 달아올랐다.

서로의 마음들이 합쳐져 누가 먼저랄

것없이 일시에 터져오른 폭풍같은 박수소리, 만세의 환호성! 순간순간이 충격적이었고 하루하루가 감동의 연속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남측당국자와 함께 라신 승용차가 환영의 꽃물결 굽어치는 평양의 수심리연도를 누비는 광경도 감동적이었지만 비범한 예지와 출중한 정치실력, 한없이 넓은 포용력과 뜨거운 동포애로 21세기의 통일리정표를 마련해주시고 민족단합의 대서사시적화폭을 펼쳐주신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위인상은 그야말로 격동의 절정이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와 함께 우리 장군님께서 남측당국자의 손을 잡고 만장에 해빛같은 환한 미소를 보내시는 영상을 비롯해는 순간 나의 두볼로는 감격의 눈물이 검잠수 없이 쏟아져내렸다.

내가 끝없는지 누구의 손에 끌리웠는지는 알수 없지만 나와 동지들은 북반쪽으로는 흥분을 억제할수 없어 밤거리로 뛰쳐나갔다.

그러는 민족의 특대사변을 경축하는 남녘으로 각계층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모두가 밤가는줄 모르고 천출위인인신 우리 장군님의 천품에 매혹된 자기들의 심정을 격조높이 토로하였고 분단민족의 설움을 떨쳐버리게 된 민족적정서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참으로 만감이 교차되는 순간이었다.

아, 이런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기 위해, 이런 환희의 감정을 체험하기 위해 내 흥안의 시절에 들어섰던 감옥문을 배탈아버지기가 되어 나서기까지 수십여년을 하루와 같이 통일애국의 신념을 지켜온것이 아닌가.

매일 매 시각 인간의 피를 말리우는 교형리들의 고문과 악형, 끈질긴 회유를 박차고 통일의 신념을 지켜 투쟁하던 간고했던 나날들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태양을 따르는 길에서 실사 죽는다 해도 신념만은 굽힐수 없다는 결사의 의지를 안고 감방벽에 통일지도를 새기던 일이며 비록 감방안이지만 동지들과 어깨를 걸고 《통일렬차 달린다》는 노래를 부르며 마음속으로 위인들이 계시는 평양을 찾아가던

## 비전향장기수 리공순

그 나날들... 아버지수령님께서 서거하시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철창이 부서지도록 비분에 주먹을 치던 일도 눈물겹게 돌이켜졌다.

사실 원수들이 우리 공화국을 어찌보겠다고 사면발방에서 덤벼들고 어중이떠중이 인간쓰레기들이 그 무슨 《붕괴》요 뭐요 하며 여론을 어지럽히던 류레없이 엄혹한 시기에 그 누가 과연 평양상봉과 같은 특대사변을 맞으리라고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하지만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기어올라 통일을 이룩하여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우리 세대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자주통일 위업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겜기에 우리 겨레는 가슴벅찬 통일시대, 6.15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다.

나와 동지들은 멀리 북녘하늘을 우러르며 6.15 해빛으로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아버지장군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렸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신뢰와 믿음은 곧 승리였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절세의 위인이 안겨준 혁명적신념,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불굴의 통일의지를 안고 싸웠기에 원한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국의 품, 장군님의 품에 안길수 있었다.

백두의 선군령장이 배풀어준 6.15의 혜택속에 수십년세월 옥중에서 폐인이 되었던 인생들이 청춘을 되찾았고 차마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행복과 영광의 최절정에 올라섰다.

나는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우리들이 직접 체험한 세 삶의 년월과 함께 경이적인 사변들을 수놓으며 흘러온 6.15시대의 나날들을 깊은 감회속에 돌이켜보곤 한다.

삼천리강도에 일찌기 불수 없던 위인칭송의 열풍, 《김정일열풍》이 새차게 몰아치는 속에 반세기이상 굳게 막혀있던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모두 열리고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한자리

에 모여앉아 손을 잡고 통일을 노래하는 화폭들이 련이어 펼쳐졌다.

평양차녀들이 부르는 《반갑습니다》의 노래가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대항창으로 울리고 남녘동포들이 《아리랑》 관람열풍에 휩싸여 서로마다 경쟁적으로 평양을 찾아오는 모습은 얼마나 겨레의 가슴을 높여주었는가.

나도 남녘에서 혈육처럼 지내던 통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을 평양에서 또다시 만나 회포가 나누고 통일을 어서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자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6.15때마다 북과 남, 해외가 모여 민족통일대추진을 성대히 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기어올려 통일을 이룩하고아말 겨레의 드높은 기세를 과시하던 감동적인 모습들은 정녕 잊을수 없다.

참으로 6.15시대의 갈피갈피에 아로 새겨진 경이적인 사변들은 통일의 새봄을 노래하는 교향곡이 되어 겨레의 심금을 새차게 울려주었고 통일의 축포성 터쳐오를 경축의 날을 크나큰 환희속에 그려보게 하였다.

남녘겨레는 《삼천리는 현재 중통일시대》, 《남은것은 통일박수치는 일본》이라며 희망과 열정으로 설레었다.

그러한 6.15가 피뢰적패당의 발악적도전으로 중언한 시련을 겪고있다.

6.15는 자주이다. 역적패당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거역하고 외세와의 공조로 통일을 가로막아나섰다.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언제가도 이를수 없는 허황한 《흡수통일》망상을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역적패당은 무덤하게도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려는 천주에 용납 못할 투대형도발까지 감행하면서 겨레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통일의 신념을 꺾어보고도 광분하고있다.

6.15는 평화이다. 역적패당은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애써 마련한 이 땅의 평화를 엄중히 파괴하고 외세에 추종하여 우리 민족에게 핵전쟁의 참화를 들켜워보려고 매일

이 추포성을 울리며 미쳐돌아갔다.

합선침몰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과 같은 특대형도발들을 조작하고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갔다. 더우기 역적패당은 력사적인 공동선언이 발표된 날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도발을 획책하는 그 무슨 《서북도서방위사령부》라는것을 조작하는 늑골까지 벌려놓으면서 6.15를 전쟁의 화염으로 덮어버리려 하고있다.

6.15는 단결이다. 역적패당은 6.15의 단결과 화해의 정신도 란도질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6.15와 더불어 그토록 겨레의 가슴을 부풀게 하던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쓰는것자체가 범죄시되고있다.

통일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고 성수가 나서 뛰어나던 애국인사들은 줄줄이 감옥으로 끌려가고있다.

북의 형제들과 백두산에도 함께 오르고 금강산의 단풍길도 같이 거닐던 그리운 얼굴들은 더이상 볼수 없고 6.15의 도양에서 무르익던 동포의 정, 협력과 교류의 열매들은 참혹하게 짓밟히고있다.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희열을 한껏 북돋아주던 6.15시대 가 리명박패당과 같은 반역도당에 의해 통락당하고있다는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며 6.15의 성과들을 모조리 짓밟은 리명박패당의 피악은 결코 용납될수 없다.

오늘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집권보수패당에 대한 치초는 격분과 분노를 안고 반리명박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보수패당의 발악적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조국통일운동이 시련을 겪을수록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을 더 애국해주신 6.15시대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절감하고있으며 한없이 비범한 정치실력과 뜨거운 민족애를 지니신 장군님을 우러르며 조국통일을 확신하고있다.

얼마전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청송하는 글을 올렸다가 파쇄당국에 체포된 남조선의 한 로동자가 파쇄교형리들앞에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청송한것이 왜 죄가 되는가,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칠 각오가 되어있다. 내 신

념은 강철같이 변함이 없다고 당당히 웨친것도, 괴뢰군장병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한마음을 안고 《남에게 바치는 시》까지 써서 괴뢰들을 전멸케 한것도 절세의 위인을 따를 때 통일이 온다는 민심의 반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면 통일이 온다.

이것은 6.15통일시대의 탄생과 도도한 전진을 목격하면서 온 겨레의 가슴속에 성벽처럼 굳건히 자리잡은 철리이다.

6.15시대의 전진은 탄탄대로에서 이루어진것이 결코 아니었다.

내외의 반통일세력은 자주통일시대의 흐름을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려 세우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강철도 녹이고 바다도 끓게 할 통일애국의 숭고한 뜻과 열정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에 또다시 10월의 평양수뇌상봉이 마련되어 세계를 경탄시켰고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를 더 활력있게 추동해나갈수 있었다.

오늘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 확고한 결심을 지니시고 반통일의 사나운 역풍을 산군의 폭풍으로 밀어내시며 온 민족을 조국통일성전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고계신다.

하기에 온 겨레는 《6.15시대는 김정일시대》라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를 오직 앞으로만 전진해나갈것이라고 확신하고있다.

그러나, 조국통일의 앞길에 비록 시련은 있어도 6.15자주통일의 기판치는 반드시 통일의 종착점에 가닿게 될것이다.

통일의 태양이 삼천리를 비추며 6.15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겨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통일애국의 신념으로 불타는 6.15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힘차게 마중해가자.

# 6.15 공동선언 발표 11돐 기념

## 중앙보고회 진행



6.15공동선언발표 11돐 기념 중앙보고회가 14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이 기보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시기에 6.15공동선언발표 11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제 89(2000)년 6월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북남공동선언을 발표하시었다.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우리 민족은 반세기이상 지속되어오던 불신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가는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주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시대와 민족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자주통일위업이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서던 2007년 10월 또다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어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선포하시었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10.4선언의 채택이었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악랄한 동족대결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결 같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북남관계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것은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고 그 리행을 과한시kin데 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대결분위기를 해소하고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길은 공동선언들을 리행하는데 있다.

고있는 모든 곳에서 민족중심의 열풍이 새차게 휘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동족대결에 매달리면서 6.15시대의 귀중한 성과들을 거세말살하려는 괴뢰보수집권세력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책동과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오늘 가장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있다.

우리는 리명박역적패당이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계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려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무자비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것이다.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공동선언의 정신대로 계급과 계층, 당파와 소속,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손잡고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의 단합을 가로막는 계급단성인들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진보련대, 참여련대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야당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남과 북, 해외가 함께 진행하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무자비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것이다.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남조선에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의 단합을 가로막는 계급단성인들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진보련대, 참여련대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야당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남과 북, 해외가 함께 진행하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무자비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것이다.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모두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는 《우리는 하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본사기자

## 남조선 각계 가 림진각에서 6.15통일행사 진행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가 15일 경기도 파주의 림진각 앞에서 6.15평화통일민족대회를 가졌다.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되어있던 6.15공동선언발표 11돐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 남측대표단 성원들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진보련대, 참여련대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야당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남과 북, 해외가 함께 진행하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무자비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것이다.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남조선에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의 단합을 가로막는 계급단성인들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진보련대, 참여련대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야당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남과 북, 해외가 함께 진행하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무자비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것이다.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남조선에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의 단합을 가로막는 계급단성인들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진보련대, 참여련대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야당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남과 북, 해외가 함께 진행하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무자비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것이다.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남조선에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의 단합을 가로막는 계급단성인들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진보련대, 참여련대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야당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남과 북, 해외가 함께 진행하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무자비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것이다.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남조선에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의 단합을 가로막는 계급단성인들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진보련대, 참여련대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야당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남과 북, 해외가 함께 진행하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무자비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것이다.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남조선에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의 단합을 가로막는 계급단성인들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진보련대, 참여련대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야당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남과 북, 해외가 함께 진행하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무자비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것이다.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남조선에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의 단합을 가로막는 계급단성인들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진보련대, 참여련대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야당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본사기자

서 그들은 리명박 《정부》가 이제라도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리명박 《정부》가 6.15정신을 말살하려고 아무리 발악해도 평화통일로 향한 민족의 발걸음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당국이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걸어치우고 6.15공동선언리행을 나설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통일기를 행하기로 하였다 6.15공동선언발표 11돐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끝마쳐 가로막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오늘의 엄중한 현실은 6.15공동선언을 리행하는 것이 평화와 통일의 유일한 길임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본사기자

## 통일념원 마라손경기대회 진행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의 주최로 12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통일념원마라손경기대회가 있었다. 여기에는 중, 고등학교학생들과 시민 3 000여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 앞서 진행된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민족적단합과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민중의 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하였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 6. 15정신으로 굳게 손잡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 6. 15민족공동위원회 호소문 발표

6.15공동선언발표 11돐에 즈음하여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6.15민족공동위원회)의 북측위원회, 남측위원회, 해외취위원회가 15일 공동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1돐을 맞이하고 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2000년 6월 북남공동선언의 채택은 불신과 대결의 민족분열사를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력사로 바꾸어놓은 일대 사변이었다고 호소문은 밝혔다.

그러나 오늘 북남사이에는 래왕과 접촉, 대화와 통일회합의 길이 막히고 대결과 전쟁의 기운만이 무겁게 감돌고있다고 호소문은 지적하였다.

호소문은 더우기 북과 남, 해외의 민간단체들이 합의를 추진해온 개성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1돐기념 민족공동행사를 끝끝내 가로막은것은 민족

의 화합과 평화, 통일에 대한 공명언한 부정이라고 단죄하였다.

겨레의 단합과 협력교류를 파괴하고 대결의 길을 추구하는 이러한 민족분열행위는 력사에 똑똑히 기록될것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호소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해나가자.

이것이 오늘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6.15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은 화해와 평화로 가는 새 길을 열어놓았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것은 민족의 안녕에 관한 사활적문제이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자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자신이다.

전쟁이 없는 통일된 조국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것은 우리 민족의 지향이며 념원이다.

북남공동선언에는 민족의 힘을 믿고 동족끼리 서로의 지혜와 슬기를 하나로 모아 공동번영을 이룩하려는 민족자주의 정신이 구현되어 있다.

우리 민족이 서로 돕고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자주의 정신은 북남사이의 신뢰와 화합의 근본바탕이며 여기에 평화와 있고 통일이 있다.

6.15공동선언은 사상과 리념, 정경과 신앙의 차이를 넘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치자는 민족대단합의 정신이다.

당파와 소속을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며 공동선언리행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해내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이 안아온 소중한 결실들을 고수하며 6.15시대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 위해 더욱 분발해나가자.

6.15공동선언실천의 길에서 온 겨레가 하나가 되자.

이것이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겨레앞에 내놓는 약속이자 다짐이다.

무력충돌로까지 치닫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출로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6.15공동선언리행에 우리 민족이 살길 있다.

6.15의 정신에 역행하여 대결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단호히 저지시켜 나가자.

말로는 대화를 운운하고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워 상대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이것은 평화를 바라고 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치게 될것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하는데 앞장설것이다.

북남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민간단체들의 접촉과 래

왕, 협력교류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자.

6.15공동선언발표 11돐기념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차단되고 여전히 군사적강장이 지속되고있는 오늘의 엄혹한 현실에 온 겨레가 분노하고있다.

6.15공동선언리행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가 가로놓여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며 6.15시대의 도도한 흐름은 결코 막을수 없다.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심장의 고동은 멈추지 않을것이며 6.15공동선언정신에 대한 온 겨레의 지지와 열망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해내의 온 겨레여! 우리모두 6.15정신으로 굳게 손잡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

6.15공동선언 만세!  
본사기자

# 6. 15 공동선언 실천 북측 위원회 성명

남조선의 괴뢰보수패당은 6.15공동선언발표 11돐을 맞이하며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대표들이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던 민족공동행사에 남측대표단이 참가하려는것을 끝끝내 가로막는 반통일적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북, 남, 해외취위원회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대결과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려는 일념으로부터 올해 6.15통일행사의 명칭을 6.15공동선언발표 11돐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로 하고 6월 15일 개성에서 개막식과 토론회, 부문별상봉, 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남측당국은 민족공동행사와 관련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북, 남, 해외취위원회의 요구와 실무접촉들을 여러차례 파란시키며 이어 《5.24조치》를 운운하면서 남측대표단전진의 개성방문을 끝내 가로막아 6.15공동행사가 진행될수 없게 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또다시 파란시킨 괴뢰패당의 책동을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또 하나의 악랄한 도전으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념원을 짓밟는 용납 못할 반통일적범죄

행위로 각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구탄한다.

리명박패당은 올해의 6.15민족공동행사가 가로막음으로써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대결과 전쟁의 길로 계속 나가려는 흉심을 더욱 여실히 드러냈다.

조국통일은 민족최대의 숙원이며 이 땅에 평화보다 더 절박한것은 없다.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괴뢰패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의 분노는 지금 극도에 이르고있다.

남조선에서는 괴뢰보수패당의 류례없는 반인민적악정과 파쇼폭압, 대결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온 겨레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유린하고 조국통일운동을 약탈하게 탄압하는 역적패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역적패당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남조선인민들과 해외의 전체 동포들과 함께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거족적통일대행진의 발걸음을 작극 다그쳐나갈것이다.

주제100(2011)년 6월 15일  
평양

# 6. 15 공동선언발표 11돐기념 재유럽 동포 축전 진행

6.15공동선언발표 11돐기념 재유럽동포축전이 4일 도이칠란드의 베를린에서 진행되었다.

축전에는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취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 카나다지역위원회 성원들과 도이칠란드, 프랑스, 단마르크 등 유럽 각지의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축전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취위원회와 각 지역위원회들, 재미동포전국

연합회 등 세계 각지의 동포 조직들에서 보내여온 편지가 소개되었다.

이어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출연자들은 남조선의 리명박패당에 의해 북남관계가 파란되고 조선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하루빨리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자

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축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결의문은 모든 해외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6.15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6.15공동선언발표 11돐을 기념하는 예술공연이 있었다.

본사기자

지난 15일 남조선에서는 연평도와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의 5개 섬을 전담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창설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병력과 군사장비들을 갖춘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한것도 도발적이지만 그 창설날자에도 스쳐지날수 없는 문제가 있다.

6월 15일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날이다. 남조선군부의 호전세력이 날자를 골라골라 바로 이날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라는것을 창설한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9일(5월 창설하기로 계획된 사령부가(6월)15일에 맞춘것은 최근 북의 대남정책에 대한 맞대응일환》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6.15를 정면으로 부정하기 위한 고위적인 책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것이다.

6.15공동선언은 그 누구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이 합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조국통일의 대강이다. 민족의 자주와 통일의 길도 여기에 있고 전쟁을 막고 평화

를 지키기 위한 방도도 이 선언에 깃들어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이미 실천을 통해 남김없이 확증되었다.

이러한 공동선언이 채택된 날을 택하여 남조선호전세력이 《북의 대남정책에 대한 맞대응》을 운운하며 또 하나의 새로운 북침성체공격집단을 만들어낸것은 6.15공동선언의 고수리행을 오히려 온 겨레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

거문군》, 《합의문이 아니라 선언문이어서 리행할 의무가 없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으며 외세와의 공조로 북남대결과 전쟁책동에 매달려온것이 남조선의 집권보수세력이다.

그들의 머리속에는 6.15에 대한 적대의식이 짙 차 있다.

사람들은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발표 9돐이 되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현 인택은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6.15공동선언발표기념 행사에 초청받지 않고도 3년 연속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포함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북남공동선언을 대하는 관직과 태도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인론들도 《통일부장관의 남북정상회담기념행사참석여부는 6.15남북

민족대회에 참가할 남측대표단의 실무접촉은 물론 대화참가자제를 불허함으로써 《반통일부》, 《대결부》의 이름에 어울리는 죄악을 일삼고있다.

해마다 6월 15일이 오면 북과 남에는 판이한 현실이 펼쳐진다. 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6월 15일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마련한 의의깊은 날로 성대히 기념하고있지만 남조선에서는 6.15공동선언을 악랄하게 말살하여 이 땅에 대결과 전쟁을 몰아오는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분노와 저주의 목소리들이 울려 퍼진다.

서로 상반되는 두 모습에서 세계는 조선반도에서 누가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바라고 누가 민족의 지향에 가?》 하고 지켜보았지만 본심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6.15를 맞이하며 북과 남, 해외가 함께 모여 진행하던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수년간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하고있는것도 반통일대결세력이 권력을 라고앉아있기때문이다. 올해에도 남조선의 통일부는 개성에서 북과 남, 해외가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기로 합의한 6.15평화통일

# 6. 15 공동선언발표 11돐기념 도서, 사진, 미술전시회 개막

6.15공동선언발표 11돐기념 도서, 사진, 미술전시회가 로씨야고려인통일연합회(로씨야고려인)의 주최로 9일 모스크바에서 개막되었다.

전시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립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립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전시회개막식에는 로씨야

고통련 일군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로씨야고려인위원장인 개막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11년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속에 평양에서 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고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고 말하였다.

조국통일운동은 의연히 내외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속에서 진행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된 도서, 사진, 미술작품들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로씨야 씨할린주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이 6.15공동선언발표 11돐에 즈음하여 7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1돐을 맞이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선언은 온 민족과 세계의 지지를 받았으며 겨레에게 희망과 믿음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당국자는 미국에 추종하여 6.15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북침야망을 드러내놓으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있다고 담

화하는 규탄하였다.

담화는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파국적인 사태는 전적으로 남조선보수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초래한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얼마전에도 남조선당국자는 해외를 돌아치며 불순한 체제대결명발을 늘어놓음으로써 민족의 격분을 자아냈다고 담화는 단죄하였다.

담화는 남조선당국이 대결명상을 버려야 하며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뜨게 전쟁책동에 매달리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못해 지어는 북남관계가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6.15공동선언발표후 북과 남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안아오

보수집권세력이다. 더우기 용납할수 없는것은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건드리는 표적까지 만들어놓고 총탄을 쏘아대는 친구세력인 남측보수당국이 그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의 말은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6.15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것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하고있다.

현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가 6.15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대결과 전쟁의 주범인 반통일세력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민족의 운명은 결코 한줌도 못되는 애국노들의 몸과 목이 될수 없다. 화근은 제때에 들어내야 한다.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북남관계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정경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반통일대결분자들

# 자멸을 초래하는 우둔한 행위

남조선보수세력의 친구에 용납 못할 특대범죄행위에 대한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는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남조선보수당국은 분노로 불타는 민족의 가슴에 칼질을 해대며 동족대결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최근 리명박이 구유반통일대결분자인 김현욱이라는자를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내정하였던것이 그 하나의 실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말하면 1981년에 남조선의 독재 《정권》이 통일을 요구하는 인민들을 기만하고 녹장할 목적으로 설립한 《대통령》자문기관, 이른바 《통일정책수립을 위한 헌법기관》이다. 한마디로 남조선집권세력의 《대북정책》에 조언을 주고 킨를 잡아주는것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리명박이 명색이나마 《통일정책수립》을 위한다는 기관의 우두머리자리에 올려앉힌 김현욱은 누구인가. 지난 시기 김현욱의 행적과 최근의 발언들은 그가 그 누구와도 짝지 않은 반통일분자이며 동족대결광신자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5공》의 그늘에서 길들여져 여러차례 《국회》의원까지 해먹은 김현욱은 지난 2007년 악질보수단체인 《카톨릭리라이트》 상임의장으로 있으면서 통일실무단체에 《반미, 좌익단체》의 감투를 씌우며 모해하는데 앞장섰다. 2008년에는 보수교육단체의 고문감투를 뒤집어쓰고 철부지아이들에게까지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한 《안보교육관》을 주입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었다. 또한 반공화국극우보수단체의 운영위원장이라는것을 솔선 맡아 《정부》의 대결적인 《대

북정책》에 적극 추종하고 공화국을 헐뜯는데 주력해왔다.

올해 3월에는 극우단체인 《재향군인회》가 소집한 집회에 참가하여 반공화국대결광중으로 일관된 그 무슨 《격려사》라는것을 늘어놓았고 세상이 다 아는 광주학살사건의 진상을 《북 특수부대의 소행》이라고 외무하는 참으로 뻔뻔스러운 거짓말도 서슴없이 늘어놓았다.

더우기 이자는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변화》를 위해 《대북심리전과 베라살포를 강화해야 한다.》고 떠벌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에 내정되자마자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존엄높은 공화국의 《인권》과 《자유》까지 거들면서 우리를 걸고들었다.

북남관계가 파국을 넘어 전쟁국면에 처한 오늘 리명박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으로 이런 악질대결분자를 내정한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동족과 집권마지막까지 대결하겠다는것이며 저들의 더러운 《흡수통일》의 목적실현을 위해서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것도 서슴지 않겠다는것이다.

리명박이 지난 5월에 있는 《개각》에서 현인택을 그대로 류입시키고 대결적인 《대북정책》의 철회를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에 도전하며 하늘에 대고 사대질을 하는것과 같은 히스테리적발작으로 민족을 경악케 한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 모든것은 제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더 깊숙이 땅을 파헤치는것과 같은 우둔한 자멸행위이다.

동족대결로 시작된 남조선보수당국은 동족대결로 망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명제

지금 온 겨레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대결상태로 몰아간 리명박 《정권》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지난날 보수당국의 폐임이 넘어가 속히 쉬어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후회하며 반 《정부》 투쟁에 떨쳐나서고있고 야당은 물론 여당과 보수집권세력이 《전통적인 료법》이라고 장담하던 지역에서까지 당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남조선도처에서 날을 따라 고조되고있는 반 《정부》 투쟁기운은 동족대결을 추구하며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온 반통일보수세력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사형선고이다.

돌이켜보면 반세기 이상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거들헤온 북남관계가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6.15공동선언발표후 북과 남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안아오

못해 지어는 북남관계가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6.15공동선언발표후 북과 남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안아오

《확고한 자새》니, 《후퇴란 없다.》느니 하며 더욱 더 도전적으로 높아내고있는것이다.

이런 극도의 반통일대결집단을 그대로 두고 6.15시대의 순조로운 발전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 각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통일과 반통일사이의 대결이 최절정에 이른 오늘

6.15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것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하고있다.

현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가 6.15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대결과 전쟁의 주범인 반통일세력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민족의 운명은 결코 한줌도 못되는 애국노들의 몸과 목이 될수 없다. 화근은 제때에 들어내야 한다.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북남관계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정경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반통일대결분자들



남조선인민들 반통일적의 퇴진을 요구하여 시위

# 화근은 제때에 들어내야 한다

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하고 단합할 때만이 나라의 통일도, 민족의 번영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간직하였다.

그러나 현남조선보수당국은 우리 민족의 가슴에 간직된 6.15에 대한 신념을 어떻게 하나 허물어보려고 6.15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몰도록하다

집요하게 매어달리고있다. 지어 《자유민주주의체제와 통일》을 주제로 하여 부르짖으며 《흡수통일》명상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말파하고있다.

6.15이후 북남사이에서 진행되어오던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들을 하루아침에 단절시켰고, 《핵문제》니, 《사과》니 하면서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에 몰아넣은것도 다름아닌 리명박

6.15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것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하고있다.

현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가 6.15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대결과 전쟁의 주범인 반통일세력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민족의 운명은 결코 한줌도 못되는 애국노들의 몸과 목이 될수 없다. 화근은 제때에 들어내야 한다.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북남관계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정경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반통일대결분자들

6.15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것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하고있다.

현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가 6.15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대결과 전쟁의 주범인 반통일세력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민족의 운명은 결코 한줌도 못되는 애국노들의 몸과 목이 될수 없다. 화근은 제때에 들어내야 한다.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북남관계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정경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반통일대결분자들

# 배움의 권리보다 돈을 중시하는 사회

배움의 권리는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의 하나이다. 때문에 배움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제도의 인민성과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되며 인권을 논할 때 배움의 권리에 대해 논하게 되는것이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모든 대학생들이 국가의 부담으로 철저한 무료교육을 받고있을 뿐아니라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마음껏 배우고있다.

그러나 공화국과 한지맥으로 잇닿은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뛰여오르는 등록금으로 하여 대학생들의 배움의 길이 더욱 암담해지고있다.

남조선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각각 241만원과 479만원이던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10년이 지난 오늘 444만원과 753만원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국립대학의 경우 203만원(82.7%), 사립대학은 274만원(57.1%) 증가한것이다.

대표적으로 남조선의 을지대학은 901만 4 000원, 한세

대학은 891만 3 000원, 연세대학은 869만 2 000원, 리화여자대학은 869만원으로 올랐다. 등록금이 800만원이 넘는 대학은 50여개에 달하고있다.

특정대학, 특정학과와 최고등록금은 더욱 가파로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남조선 교육개발원의 《2010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사립대의 최고등록금(학과 기준)은 2000년 654만원에서 2010년 1 347만원으로 2배, 국, 공립대는 같은 기간 495만원에서 1 620만원으로 3.27배로 늘어났다.

현재 남조선대학생들이 1년에 내야 하는 1 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은 일반로동자가 수십년간 뼈빠지게 일하여 번 돈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의 돈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두번째로 비싼 학비이다.

이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몰수 없이 이른바 《학자금 대출제》라는것을 내왔지만 돈을 은행들에서 빌려온 대가로 후날 그 몇배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것으로 하

여 오히려 대학생들을 빚부담에 시달리게 하고있다.

지난해 12월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2007년에 비해 6.75배에 달하며 졸업한 대학생 10명당 7명이 갚아야 할 빚은 평균 1 125만원에 달한다.

치솟는 등록금과 실업문제 등으로 44%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등록을 포기하고있으며 재학하거나 휴학하는것이 하나의 풍조로 되면서 대학은 《실업자양성소》, 대학졸업생들은 《백수군단》으로 불리우고있다.

공부에 전념해야 할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식당이나 복사판, 유홍업소에서 샅바일을 하고있는것이 오늘의 남조선 사회이다.

엄청난 남조선의 언론들이 《대학생들의 본인이 공부하는것인지 과외로돈을 하는것인지 모를 정도》라고 비난하고있는가.

엄청난 등록금이 시달리는 대학생들은 돈만 아는 세상을 저주하며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그 수는 한해

에 200~300명이나 된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등록금문제가 제기된것은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리명박 《정권》의 반인민적인 교육정책으로 하여 폭발적으로 뛰여오른것이다.

《실용》을 약국의 갑조처럼 써먹은 남조선당국은 집권하자마자 《교육의 실용화》를 떠들며 《대학인명화》와 《대학자문화방침》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이것은 등록금을 비롯한 교육비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대학이 대학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남조선에서 그 수를 대폭 늘어나게 하거나 대학축이 교육비용을 제멋대로 인상하도록 부채질하는것이나 다름없는것이다.

실지로 리명박 《정부》의 《대학자문화방침》이라는것이 나오자마자 대학들마다서 등록금을 일방적으로 7~8%이상 높였는가 하면 수업료를 비롯한 각종 명목의 교육비들도 마구 끌어올렸다.

지금도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반인민적교육정책을 철회하고 저들이 약속했던 《반값등록금》공약리행에 나설 대신 《등록금환화방안》이라는것을 또다시 들고나왔다.

남조선의 민주생명화통일주권련대는 보수집권세력이 들고나온 《등록금환화방안》에 대해 《기준과 조건이 더 까다롭고 현 당국이 시행하고있는 학자금대출의 교육정책과 별반 다를바 없다.》고 까발하면서 《당국이 다음해 선거들에서 민중의 환심을 사려고 기만행위에 또다시 매달리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지금 남조선대학생들과 학부형들은 학원을 돈 빼앗는 수탈장으로 전락시킨 현 남조선통치배들의 죄행을 폭로하면서 투쟁에 나서고있다.

초졸집회와 시위장들에서는 《초콜라 모여라, 반값 등록금 반드시 실현하자!》, 《리명박은 물러가라!》는 구호가 힘차게 울려나오고 있다.

서철수

# 《리명박은 물러나라!》, 《반값등록금 반드시 실현하자!》

### 대규모 반《정부》투쟁 서울에서 전개, 대학생들과 각계각층 군중 5만여명 참가

6월인민항쟁 24돐을 맞으며 10일 서울에서 리명박역적패당을 규탄하는 반《정부》초졸집회와 시위가 전개되었다.

초졸집회가 청계광장에서 있었다.

집회에는 등록금문제해결을 요구하여 동맹휴학을 단행한 30여개 대학의 학생 2만여명을 포함한 5만여명의 각계각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조우리는 24년전 선배들이 항쟁의 거리에서 독재타도를 웨치며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싸운것처럼 우리는 오늘의 투쟁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민주로총 위원장 김영훈은 등록금이 계속 올라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고있다고 하면서 등록금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 로동자들도 함께 떨쳐나섰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인석은 리명박이 끝내 민중의 뜻을 무시한다면 더 많은 초콜이 모이고모여 현 《정권》을 끝장내야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민주로동당 대표 리정희는

리명박이 이제 와서 반값등록금공약을 한적이 없다고 우기는데 대해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동안 부자들에게 면제해준 세금만 받아내도 반값등록금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의 장 박자은은 집회참가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대학생들은 매우 고무되었다고 하면서 오늘의 투쟁은 등록금문제를 비롯한 《정부》와의 싸움에서 전환적극면을 여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월 《림시국회》가 진행되는 전기간 계속 초콜을 들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초콜아 모여라, 반값등록금 반드시 실현하자!》, 《리명박은 물러나라!》, 《우리로 두 힘을 모으자!》는 구호를 쳤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투쟁에 나섰다.

피괴패당이 67개 중대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으나 격노한 시위자들의 앞길을 막지 못하였다.

시위자들은 파초경찰이 광화문일대와 종로 등 곳곳에 설치한 저지선들을 무너뜨리고 울지로나와 명동, 남대문을 거쳐 대학로까지 진출하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였다.

시위는 다음날 새벽까지도 계속되었다.

한편 70여명의 대학생들은 청와대앞에서 반역패당의 기

만적인 반값등록금정책을 규탄하며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렸다.

파초경찰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면서 전원련행하는 폭자를 감행하였다.

이날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서도 리명박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는 투쟁이 수많은 군중의 참가하여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본사기자

얼마전 남조선당국자가 국무회의라는데서 1950년의 조선전쟁에 대해 말하면서 《60년이 지났는데도 도와주었고 고마워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횡설수설 하였다.

민족적자존심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인륜마저 상실한 황당함 께변이 아닐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난 세기 벌어진 조선전쟁시기 미국과 그 추종국가의 군대들은 도시와 마을을 폐허로 만들고 수백만 명의 우리 겨례를 무참히 학살하였다.

우리 민족을 타치는대로 살육한 이런 외세가 리명박에게는 그렇게도 고마운것인가.

# 《북인권법》 조작소동은 체제대결의 절정

남조선의 집권세력이 대결적인 《북인권법》을 기어코 조작하려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날뛰고있다.

15일 《한나라당》은 지난 3년간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며 북남관계를 파괴한 보수당국을 규탄하는 민심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는 아랑곳없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흉라명처럼 불어댔다. 이보다 앞서 10일 통일부 장관 현인택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그 누구의 《인권개선》이니 뭐니 하며 《북인권법》을 《6월 《림시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이와 같은 소리는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도 울려나왔다. 지금 《한나라당》은 이미전부터 저들이 상정시켜놓은 《북인권법》을 6월중에 어떻게 하나 통과시키려고 총공세를 펼치고있다.

이것은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용납 못할 반동일대결망동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을 파쇼가 란무하는 사람 못살생지옥으로,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로 전변시켜놓은 리명박 《정권》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는 돈때문에 대학생들을 고통속에 보내며 인생의 태반을 빗더미에 올려 신용해야 하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분노의 초콜시위가 그칠새없이 계속되고있다. 남조선사회를 이렇게 만든 인권유린의 장본인들이 그 누구의 《인권》을 부르짖는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그들이 《북인권법》 제정에 것처럼 광분

하는것은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동족대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통일은 상대방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화해하고 협력할 때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고 하는 《북인권법》은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무시하고 썩어빠진 자본주의체제를 북에까지 확대적용하려는 악법이다. 그것은 그 제정취지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반동일파쇼악법인 《보안법》을 훨씬 통과하는 대결악법이다.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면서 체제대결에 집요하게 매달려온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그들은 오늘에 와서는 북의 사상과 존엄, 제도를 법적으로 부정하려고까지 날뛰고있는것이다.

천막 공화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체제대결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이러한 대결악법 《국회》에서 조작된다면 그 순간부터 북남관계는 더욱더 파국으로 치달릴것이다. 그로 하여 산생되는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차정연습마당에 공화국의 체제를 헐뜯는 구호와 선전물을 걸어놓고 소란을 피우다 못해 감히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표적까지 만들어놓고 총란을 쏘아대는 천추에 용납 못할 광기를 부린것도 성치않아 《북인권법》 조작과 같은 제2의 《표적사건》을 꾸며 체제대결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려는 리명박 《정권》의 특대형범죄소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김응철

# 단평

## 전쟁사환군의 추대

한때는 1950년 조선전쟁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철육들을 잃었다고 눈물을 제재던 남조선당국자가 수척심도 모르고 외세에 무릎을 꿇고 감지덕지 조아리고있으니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권력아 육과 더불어 정치 목적숨을 부지하면 된다는것이 아마 그의 지론인것 같다.

남조선집권자의 망발은 선일자들의 전철을 밟아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또 다시 외세와 공조하여 이 땅을 우리 겨례의 대살육터로 만들려는 범죄적인 기도를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김정혁

한때는 1950년 조선전쟁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철육들을 잃었다고 눈물을 제재던 남조선당국자가 수척심도 모르고 외세에 무릎을 꿇고 감지덕지 조아리고있으니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권력아 육과 더불어 정치 목적숨을 부지하면 된다는것이 아마 그의 지론인것 같다.

남조선집권자의 망발은 선일자들의 전철을 밟아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또 다시 외세와 공조하여 이 땅을 우리 겨례의 대살육터로 만들려는 범죄적인 기도를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한때는 1950년 조선전쟁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철육들을 잃었다고 눈물을 제재던 남조선당국자가 수척심도 모르고 외세에 무릎을 꿇고 감지덕지 조아리고있으니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권력아 육과 더불어 정치 목적숨을 부지하면 된다는것이 아마 그의 지론인것 같다.

남조선집권자의 망발은 선일자들의 전철을 밟아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또 다시 외세와 공조하여 이 땅을 우리 겨례의 대살육터로 만들려는 범죄적인 기도를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 《공약》과 현실 (2)

## 누구를 위한 《실용》이였는가

남조선당국자는 집권초기 《(국익)에 위배되면 동맹이란 없다.》고 하면서 《철저한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펴겠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그가 떠든 《국익》이란 남조선인민들의 리익이 아니라 자기가 《대통령》 감독을 쓰도록 적국 도와준 미국상전의 리익이었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대통령선거》가 있기 전부터 《동맹관계의 훼손》이니 뭐니 하며 남조선미국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떠들어댄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2006년 3월 당시 서울시장의 신분으로 미국을 행각한 현 집권자는 가는 곳마다에서 《미국의 덕》으로 남조선이 어떻게 되었다는니, 미국의 대외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남조선이라는니 하며 미국상전을 할애비처럼 추어올리는 비굴한 추태를 부리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도 미국상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입만 벌리면 《동맹관계의 회복》이

니, 《공조》니 하는 친미사대적인 말을 때때로 늘어놓았다.

그러나 집권하자마자 민족을 등지고 외세중시를 표방하면서 친미사대에 혈안이 된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일찌기 기업체에 뛰여들어 돈벌이에 맛을 들이며 미국의 반동철학인 《실용주의》의 신봉자가 된 그가 《실용주의》를 《국정리념》으로 내세우고 자기 《정권》에 《실용외교》라는 간판을 단것만 보아도 그의 숭미사대기질을 엿볼수 있다.

하기에 그는 권력을 쥐자마자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과 미군사령부부터 찾아갔으며 집권후 미국으로 건너가 《동맹관계격상》을 애걸복걸하면서 그 대가로 미친 소병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의 남조선시장개방과 아프가니스탄재파병 등 상전의 강도적인 요구를 낮게 받아 물었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에 현 집권자는 미국상전에게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2015년까지 연기하겠으며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 재협상내용을 벌려놓고 자동차시장을 비롯한 상전의 추가개방요구를 다 들어주었다.

그러고도 창피할줄 모르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 조건 두는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이라는 얼빠진 소리까지 늘어놓아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일본에 대해서도 극히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그는 《창조적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판계 《니》, 《과거에 구여되지 않고 미래에로 나아가는 신시대창조》니 뭐니 하며 일본의 과거범죄를 백지화하고 그들의 경제적위곡과 독도강탈 등 제침책동을 각방으로 비호두둔하였으며 일본과의 정치, 군사적결락을 어느때보

다 강화하였다.

다른것은 제쳐놓고라도 2008년 일본행각당시 전 일본수상인 후쿠다와의 공동기자회견장에 임진조국전쟁시기 조선을 침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침략괴수인 《홍신수길(도오도미 히데요시)》을 상징하는 《고시제노 기리》라는 마크가 리명박의 회견탁 앞면에 빼지않고 붙어있는 사실은 일본이 남조선당국자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것을 충분히 알수 있게 한다. 오죽하면 일본유익언론들이 리명박에 대해 《보기 드문 친일파대통령》이라고 패제를 불렀겠는가.

최근에도 남조선당국은 고영제를 비롯한 미국의 범죄행위를 비호두둔해나서는가 하면 그보다 앞서 얼마전에는 국제기구에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의견을 제출하는 망동을 부리었다.

외세를 위해 민족적자존심과 리익을 서슴없이 해치는 현 당국의 《실용외교》를 두고 남조선의 각계가 《간도 쓸데도 다 빼준 굴욕외교》라고 단죄규탄하고 있는것은 너무나 당연한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3.1인민봉기와 더불어 우리 겨례의 반일투쟁사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긴 6.10만세시위투쟁이 있을 때로부터 85년이 지났다.

6.10만세시위투쟁은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에서 모진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쌓이고쌓인 울분과 원한의 폭발이었다.

3.1인민봉기를 계기로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열의를 무마시키기 위해 독압적인 《무단통치》를 기만적인 《문화통치》로 바꾸어놓은 일제는 1920년대 중엽부터 친략자, 략탈자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으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탄압과 략탈을 일층 강화하였다.

1926년 4월말 리조의 마지막왕이었던 순종의 즉음을 축하하였던 순종의 반일감정은 최대로 격화되었다.

이에 질절한 일제는 인민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기마경찰대를 출동시켜 총칼과 끈봉으로 해산시켰다.

일제의 포악무도한 탄압

만행은 불길처럼 타번지는 우리 민족의 반일감정에 기름을 쏟아붓는 격이 되었다.

순종의 장례날인 6월 10일을 계기로 시위투쟁이 비밀리에 계획되고 추진되었다.

여기에 다급해난 일제는 인천에 정박시켜놓았던 4척의 순양함으로부터 해병대를 비롯한 수많은 군대를 서울에 끌어들이었으며 반일시위

는 상어가 창덕궁을 떠나자 《조선독립 만세!》,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격렬한 반일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일제군정들은 확대되는 시위투쟁을 진압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시위군중들은 무장한 일제군정들에게 달려들어 맨주먹으로 원수들을 때려눕혔다. 이날의 시위에는 40여만명의 시민들이 참가하였으며 반일시위

할수 없는 민족적불행과 재난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40여년간에 걸치는 감정기간 조선의 무진장한 자원을 우리 민족이 창조한 모든것을 타치는대로 파괴, 략탈하였을뿐아니라 800여만명의 청장년들을 《징용》, 《징병》으로 끌어가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에게 성노예생활을 강요하였다. 지어는 우리 민족의 말과 골, 이름까지 빼앗아 지구상에서 조선민족을 없애버리려고 간악하게 책동하였다.

일본이 과거에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이런 치명적인 만행들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잊을수 없고 용서할수도 없는 죄악이다.

게피리 3년뒤에도 황모가 못된다고 일본의 침략적본성과 파렴치성은 세기가 바뀔오늘도 변함이 없다.

일본의 재침책동을 언제나 각성있게 주시하고있는 우리 겨례는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강요한 온갖 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

리명진

# 만드시 결산하여야 할 일본의 과거 죄악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시내에 철통같은 경계망을 퍼놓았다. 지어 그들은 순종의 상어가 지나갈 길을 따라 매 전선대마다에 5~6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이른바 《레포》 용이란 간판위에 대포까지 끌어내어 군중을 위협하여나섰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참수수 없는 모독이 아닐수 없었다.

6월 10일 격노한 인민들

투쟁은 서울뿐만아니라 인천을 비롯한 여러 지방들에서도 세차게 벌어졌다.

6.10만세시위투쟁은 비록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으로 실패하였지만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조선민족의 강한 자주정신과 독립열망을 파시하였다.

6.10만세시위투쟁을 야수적으로 진압한 일제는 더욱 포악한 식민지파초통치를 실시하며 우리 민족에게 형인

절대로 잊을수 없고 용서할수도 없는 죄악이다.

게피리 3년뒤에도 황모가 못된다고 일본의 침략적본성과 파렴치성은 세기가 바뀔오늘도 변함이 없다.

일본의 재침책동을 언제나 각성있게 주시하고있는 우리 겨례는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강요한 온갖 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

리명진



북 음 우 거 전 평 양 시 의 일 부

우리 민족의 차문화 (5)

고려의 차생산규모는 매우 컸다. 이는 국가적으로 차생산...

향, 소, 부곡은 13~14세기경 향, 소, 부곡민들의 즐기...

이다. 차를 생산하기 위한 수공업자들이 하나의 생산단위를 이루고...

우리 나라에는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을 더 보충하여 완성한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이라는 우수한 지리책이 있다.

조선의 8도강산을 도별로 총괄사술한 다음 고을별로 연혁과 군병, 성서, 풍속, 산천, 토산, 성곽, 풍수, 학교, 무장, 사찰, 사당, 룡묘, 고적, 인물 등을 차례대로 서술한 책에는 차와 관련된 자료들도 있다.

차소에서 기본은 차원을 꾸리고 가우며 운영하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차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차생산은 차일체취와 함께 차일의 수분제거를 위한 가열, 가열을 위한 쇠가마와 돌가마의 제작 등 제품완성을 위한 공정이 매우 섬세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만큼 전문화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차소(차원)의 관리와 봉건국가에 직속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조선의 8도강산을 도별로 총괄사술한 다음 고을별로 연혁과 군병, 성서, 풍속, 산천, 토산, 성곽, 풍수, 학교, 무장, 사찰, 사당, 룡묘, 고적, 인물 등을 차례대로 서술한 책에는 차와 관련된 자료들도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차소는 15세기 세종왕대까지 지속되어오던 차소에 대한 내용이다. 15세기에는 거의나 다 없어진 향, 소, 부곡이지만 아직도 수많은 소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상도, 특히 전라도에는 좋은 진흙이 나고 가마터의 력사가 오랜 것만큼 고을마다 세련된 자기와 도기소가 예전대로 존재하여 생산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도기소와 자기소는 수공업단위로서 고려에 이어 리조시기에 이르러서도 오래 동안 유지되어왔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차소는 15세기 세종왕대까지 지속되어오던 차소에 대한 내용이다. 15세기에는 거의나 다 없어진 향, 소, 부곡이지만 아직도 수많은 소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상도, 특히 전라도에는 좋은 진흙이 나고 가마터의 력사가 오랜 것만큼 고을마다 세련된 자기와 도기소가 예전대로 존재하여 생산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도기소와 자기소는 수공업단위로서 고려에 이어 리조시기에 이르러서도 오래 동안 유지되어왔다.

《세종실록》지리지(권 150, 권 151)에는 고을별로 다른 향, 소, 부곡명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었음뿐 아니라 토산물의 품목도 밝혀놓았다. 실례로 《세종실록》지리지(권 151 전라도편)의 진도군(섬)에는 4개의 소가운데 하나의 차소가 있다고 하였고 무장현에는 통산과 재역의 두개의 차소가, 장흥도호부에는 6개의 부곡향과 함께 오양, 수대, 칠백, 유산, 가을평, 운고, 정화, 창거, 향여, 응정, 가좌, 거계, 안축골 등 13개의 차소가 있다고 밝혀졌다.

《세종실록》지리지(권 150, 권 151)에는 고을별로 다른 향, 소, 부곡명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었음뿐 아니라 토산물의 품목도 밝혀놓았다. 실례로 《세종실록》지리지(권 151 전라도편)의 진도군(섬)에는 4개의 소가운데 하나의 차소가 있다고 하였고 무장현에는 통산과 재역의 두개의 차소가, 장흥도호부에는 6개의 부곡향과 함께 오양, 수대, 칠백, 유산, 가을평, 운고, 정화, 창거, 향여, 응정, 가좌, 거계, 안축골 등 13개의 차소가 있다고 밝혀졌다.

《세종실록》지리지(권 150, 권 151)에는 고을별로 다른 향, 소, 부곡명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었음뿐 아니라 토산물의 품목도 밝혀놓았다. 실례로 《세종실록》지리지(권 151 전라도편)의 진도군(섬)에는 4개의 소가운데 하나의 차소가 있다고 하였고 무장현에는 통산과 재역의 두개의 차소가, 장흥도호부에는 6개의 부곡향과 함께 오양, 수대, 칠백, 유산, 가을평, 운고, 정화, 창거, 향여, 응정, 가좌, 거계, 안축골 등 13개의 차소가 있다고 밝혀졌다.

《이를테면》(추당섬의 꽃)이거던! 말형은 마치도 자기 자랑을 하듯 우쭐해서 말끝에는 항상 이렇게 분명 누구에게

《이를테면》(추당섬의 꽃)이거던! 말형은 마치도 자기 자랑을 하듯 우쭐해서 말끝에는 항상 이렇게 분명 누구에게

《이를테면》(추당섬의 꽃)이거던! 말형은 마치도 자기 자랑을 하듯 우쭐해서 말끝에는 항상 이렇게 분명 누구에게

단편실화소설

추당섬의 꽃 (2)

글 허문길, 그림 김윤일

그 사연을 간단히 적는다 면 이러하였다. 선생님의 교향은 추당섬이라는 남해의 어느 한 섬마을이었다. 여름철에는 동백꽃이 피는 해당화 등 갖가지 꽃속이 섬마을이 문처럼 아름답지 않다고 한다.

《추당섬의 꽃!》 열세살 소녀시절에 벌써 통일애국위업에 나섰더니 얼마나 장하고 평강한 영웅녀 길일가? 열세살을 눈앞에 바라보던 그 시절 나는 만형의 자랑속에 떠오른 그 신비로운 남도의 분위기에 자신을 비추며 커다란 신망속에 리제현선생님을 그대라고 하였다.

《추당섬의 꽃!》 열세살 소녀시절에 벌써 통일애국위업에 나섰더니 얼마나 장하고 평강한 영웅녀 길일가? 열세살을 눈앞에 바라보던 그 시절 나는 만형의 자랑속에 떠오른 그 신비로운 남도의 분위기에 자신을 비추며 커다란 신망속에 리제현선생님을 그대라고 하였다.

《이를테면》(추당섬의 꽃)이거던! 말형은 마치도 자기 자랑을 하듯 우쭐해서 말끝에는 항상 이렇게 분명 누구에게

《이를테면》(추당섬의 꽃)이거던! 말형은 마치도 자기 자랑을 하듯 우쭐해서 말끝에는 항상 이렇게 분명 누구에게

《이를테면》(추당섬의 꽃)이거던! 말형은 마치도 자기 자랑을 하듯 우쭐해서 말끝에는 항상 이렇게 분명 누구에게

최근 우리 민족의 전통음료인 막걸리의 효능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있다. 쌀과 누룩을 빚어 그대로 막 걸러낸 술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막걸리는 미생물에 의하여 자연발효되는 영양음료이다. 막걸리에 는 알콜성분 6%, 단백질 1.9%, 그리고 필수아미노산 10여종, 비타민 B, C, 엽산, 효모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 성인병예방 및 간보호 효과 막걸리는 알콜농도가 낮기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고 성인병예방에 좋다. 일반적으로 알콜농도가 높은 술은 간에 부담을 주고 혈당을 떨구며 콜레스테롤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고혈압 등 성인병을 일으킨다. 그러나 막걸리는 알콜농도가 낮고 단백질, 당질, 비타민B복합체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감소현상을 막고 간부담을 덜어 알콜성간경변이나 영양실조를 예방한다. — 항암효과 막걸리는 요르트의 10배나 되는 젖산균이 들어 있어 암을 일으키는 세균을 파괴하고 면역기능을 높여준다. 쌀막걸리에는 항암제인 면역활성화성분이 버섯보다 20%정도 더 들어있으며 항산화성분도 함유되어있다. 실험에서 암에 걸린 쥐에게 막걸리농축액을 투여한데 의

하면 암세포의 증식속도가 60%나 줄어 들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막걸리에 함유되어있는 효모는 혈청속의 콜레스테롤수치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고 비타민B는 피로완화와 피부재생, 시력증진에 좋으며 트립토판과 세리토닌 등 필수아미노산들은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막아준다. ※ 막걸리의 효능과 관련하여 전해져오는 옛 일화 리조시기 막걸리를 류달리 좋아하는 한 관서가 있었다. 어느날 관서의 제자들이 소주와 약주 등을 내놓으며 왜 좋은 술도 있는데 막걸리를 그렇게도 좋아하는가 고 하였다. 그 물음에 아무 말도 없던 관서는 소의 열주머니 3개를 가져오더니 2개의 열주머니에는 각각 소주와 약주를 넣고 남은 한개에는 막걸리를 넣었다. 관서의 말대로 며칠이 지나 열주머니들을 헤쳐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다. 소주를 넣은 열주머니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져있었고 약주를 담은것은 두께가 얇아졌지만 막걸리를 넣은 열주머니는 오히려 더 두터워졌던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한사발에 흥이 나며 기운도 돋우어 주는 막걸리를 농사일을 수월하게 할수 있게 하는 《농주》라고도 불렀다. 본사기자

때는 1934년 늦가을, 《카프사건》으로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옥중생활을 한 작가 리원우가 자기보다 12살이나 어린 김태진을 찾아왔다. 당시 김태진은 《카프》영화부에서 활약하다가 강호, 리관 등과 함께 《우리 동무》 사건으로 체포되어 3년간의 감옥생활을 하고 나온 직후였다. 일제가 강요하는 《국책영화》를 만드느라, 아니면 진보적인 민족영화를 계속 만드느라 하는 첨예한 기로에서도 자기의 초지를 굽히지 않고 라운규, 강호와 함께 민족영화창작에 전념하고있었다. 《저, 선생님. 〈뽕빠진 황소〉와 같은 유형의 작품을 만들어볼까 해서 그러는데... 저는 뛰니뛰니 해도 그 제명이 마음에 듭니다.》 《뽕빠진 황소》란 김태진이 1927년에 《조선키네마》에서 만든 예술영화였다. 영화에서는 주인공 김삼의 형상을 통하여 당시 로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황금이 인간을 우롱하는 반인민적사회의 잔인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였다. 특히 영화는 호상 반목질사하던 로동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처지를 개

단고 단결의 정신을 자각하고 투쟁의 길로 나서게 되는가를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뽕빠진 황소, 이것은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형상적으로 집약화하여 보여준 의 미심장한 제명이었다. 뽕은 황소의 유일한 무기이다. 뽕빠진 황소가 싸움에서 이길수 없듯이 단결하지 못하면 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영화의 제명은 바로 이것을 형상적으로 시사해주고있었다. 《적극 지지하네. 그런데 놈들이 그와 같은 영화를 만드는걸 허용할까. 그렇지 않아도 그 영화는 몇달 못가 상영금지되었는데... 이보라구, 소설이나 시를 쓰는게 더 좋겠네. 이번에는 다리부러진 황소라든가, 병신 황소라든가 뭐 이러루하게 말일세.》 순간 리원우의 뇌리에는 섬광같은것이 번쩍 스쳐갔다. 그것은 오래전에 체험한것으로서 보통학교에 다니던 가난한 집의 한 학생이 도화시간에 남의 크레용을 빌려쓰다가 그날따라 못쓰게 되어 백지를 내는 바람

에 선생님께서 꾸지람을 들은 사실이었다. 젊은 작가는 탐구적사색을 거듭하였다. 어린 학생 칠성이가 다섯 번째 도화시간에 그린 세발밖에 없는 누런 황소. 작가 리원우는 여기에 시적계기를 환기시켜 며칠후에는 유명한 동시 《세발달린 황소》를 발표했다. 돈이 없어 크레용을 사지 못하고 남의것을 빌려 쓰다니 칠성이야 말 하나만 더 그리면 아주 멋있게 될 황소였건만 열의 아이가 크레용을 빼앗는 통에 세발달린 병신황소로 그리게 되었다는것, 그런데도 계속 아이들이 놀려주면 이 황소가 성이 잔뜩 나서 왕눈 두알을 부릅뜨고 그들을 커다란 두 뿔로 받고말것이라는것을 노래하였다. 여기에는 가난에 굶어지지 않는 적극적인 근로소년의 착취사회에 대한 항거의 감정이 강하게 어려있다. 결국 같은 세계관과 창작방법을 소유한 기지있는 창작가들에 의해 《뽕빠진 황소》라는 영화의 제명이 《세발달린 황소》라는 동시의 제명으로 바뀌어져 형상의 무대를 옮긴 셈이었다. 본사기자

《뽕빠진 황소》가 《세발달린 황소》로

막걸리 키의 효능

건강에 유익한 정확한 스트레스

지금까지 스트레스가 수명을 감소시키는것으로 인정되어왔다. 최근 연구결과는 일반적인 신경자극이 결코 빠른 죽음을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라 반면에 활기에 넘쳐 더 오래 살수 있게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신경자극은 인체내에서

세포의 형성과정을 촉진하고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지 않게 한다. 정확한 스트레스는 아침 체조와 같은 작용을 하므로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의 도나리 반면에 활기에 넘쳐 더 오래 살수 있게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정확하지 못한 스트레스는 피해야 하는데 이것은 오

패동안 지속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학자들은 출근시간에 배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급히 뿔 때와 시험전의 정신상태 등은 사실상 면역을 높이지거나 주름살을 퍼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말하고있다. 본사기자

유모아 장님의 등불

한 장님이 밤에 집을 나서면서 마누라에게 등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집에 와있던 손님이 물었다. 「아니, 눈 못보는 봉사님이 등불을 왜 가지고 나가시요?」

《흥, 그런 말 마오. 눈 못보는 나보다 눈쁜 사람들이 가끔 가다 부딪칩니다. 그대 내가 〈여기 사람이 가오.〉 하는 표시로 등불을 들고가는것이요.》

이날 저녁에 나는 담임선생님을 모셔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하루밤 선생님을 모실수 있도록 옷방을 정결히 거둔 다음 선생님을 찾아 집을 나섰다. 그날따라 눈꽃이 휘날리듯 날리고 칼바람이 빠르게 오작 스며들었으



많은 우리 집에 모시고 함께 즐길 생각을 하니 부모님들이 무뎠고맙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보라가 이는 10리 등관을 지나 하숙집의 토방에 오르던 나는 방에서 문득 새어나오는 흐느낌에 발목이 잡혀 섰듯 문을 열수가 없었다. 그것은 분명 우리 담임선

나는 그때까지 늘 선생님의 명랑한 웃음과 밝은 모습에 습관되어왔던지라 처음 들어보는 선생님의 흐느낌에 가슴이 후두둑 떨려오도 가도 못한채 토방에 못박힌 듯 서있었다. 그날 저녁 방 안에서 새어나오던 이야기가 세월이 멀리 지나간 오늘에도 잊혀지지 않는다. 《벌써 몇번재요? 제현선생의 나이가 지금 몇이요. 아직도 분홍치마시 걸일줄 아오? 고집도 쓸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시요.》 다소 힐난기가 돌린 간곡한 어조는 분명 교장선생님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일가? 왜 교장선생님이 노하셨을까? 그것도 레일이든 설날이 아니야.) 자기 담임선생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흠잡을데가 없는분이라고 순진한 동심의 세계에서 살던 그 시절에 선생님의 울음소리와 선생님을 책망하는 교장선생님의 이야기는 그 진

의가 어쨌든 나에게 뜻밖이었다. 《교장선생님, 저를 위해서 시는 선생님의 마음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용서라니? 그건 무슨 일이야.) 나는 더욱 의아해졌다. 그리고 설전야에 담임선생님을 울리는 교장선생님이 민망스러워했다. 《음-》 교장선생님의 긴 한숨소리, 성냥을 드르륵 그어대는 소리- 침묵이 무겁게 흐르고있었다. 담배연기를 푹푹푹씩 피워올리는 교장선생님의 푸수한 얼굴이 금시 보이는듯싶었다. (왜 모두 저러실가? 참...) 나는 들어서는 안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엿듣는것 같아 되돌아서고싶었으나 그때도 선생님을 모셔야 하는다는 생각에 오도가도 못한채 그냥 문앞에서 떠날수 없었다. 본사기자